SECTOR UPDATE

2026. 1. 30

Tech팀

문준호 Senior Analyst
joonho.moon@samsung.com

정승호 Research Associate
seungho1.jeong@samsung.com

▶ 종목 정보

원익IPS (240810 KQ, 111,000)		
목표주가	130,000원	17.1%
BUY		
유진테크 (084370 KQ, 107,500)		
목표주가	130,000원	39.5%
BUY		
테스 (095610 KQ, 72,000)		
목표주가	90,000원	25.0%
BUY		
파크시스템스 (140860 KQ, 295,500)		
목표주가	370,000원	25.2%
BUY		
HPSP (403870 KQ, 44,350)		
목표주가	50,000원	12.7%
BUY		
넥스틴 (348210 KQ, 93,400)		
목표주가	110,000원	17.8%
BUY		
솔브레인 (357780 KQ, 450,000)		
목표주가	510,000원	13.3%
BUY		
리노공업 (058470 KQ, 92,100)		
목표주가	110,000원	19.4%
BUY		
ISC (095340 KQ, 138,700)		
목표주가	160,000원	15.4%
BUY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Tech (OVERWEIGHT)

반도체 소부장 - 재평가의 시간

- 지난 3개월 간 1) 메모리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고, 2) 비메모리 투자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며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valuation도 확대
- 업황을 공유하는 국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도 상기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커버리지 종목 목표주가 상향

WHAT'S THE STORY?

3개월 사이 달라진 것들: 나날이 강화되는 이익 기대감에 반도체 섹터 rally 지속. 이는 반도체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정당화하고, 또 관련 서플라이 체인의 이익 기대감 및 re-rating으로 연결.

- **메모리 기대감 강화 지속:** 올해 들어서도 DRAM 가격 상승 모멘텀 지속. 서버 고객사들은 높아진 가격에도 AI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기 급급한 상황. 전방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 모바일과 PC 고객사들도 여전히 재고 수준이 낮은 탓에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로 인해 메모리 이익 전망 나날이 상향. 가격 상승이 AI 수요는 물론,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기인하는 터라, DRAM 증설 계획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배제 불가. 최근 마이크론은 NAND 증설 계획까지 공유.
- **비메모리 CAPEX도 서프라이즈:** 예상 외로 로직/파운드리 CAPEX도 높아지고 있음. TSMC는 AI 가속기 수요에 근거하여 중장기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 전망을 상향. 이를 반영한 올해의 CAPEX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 인텔 조차도 수주 부재로 인해 올해 CAPEX를 줄일 예정이었으나, 수주 확보 기대감 및 CPU 공급 부족으로 인해 크게 줄이지 않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 삼성전자 Taylor fab도 계획대로 진행 중.
- **상향되는 이익 전망과 확대되는 valuation:** 반도체 CAPEX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플라이 체인의 이익 기대감도 강화되는 동시에 valuation도 함께 확장되고 있음. AI 수요는 여전히 상향되는 가운데, 공급 병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금의 시장은 CAPEX를 공급 과잉 리스크 요인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요인으로 해석. 특히 CAPEX가 다년간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새로운 수준으로의 re-rating을 유발.

달라진 환경, 목표주가 상향: 최근 국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은 가파른 주가 급등을 시현하였으나,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 과거 거래 밴드 대비로는 valuation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re-rating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과거 cycle과 달리 중장기 이익 가시성도 확보. 즉,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과거 대비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이를 반영하여 커버리지 종목 목표주가 상향. 상대적으로는 CAPEX cycle 초기 이익 모멘텀이 우수한 장비주들을 여전히 선호.

(다음 페이지에 계속)

반도체 섹터 점검

3개월 사이 달라진 것들

메모리 기대감 강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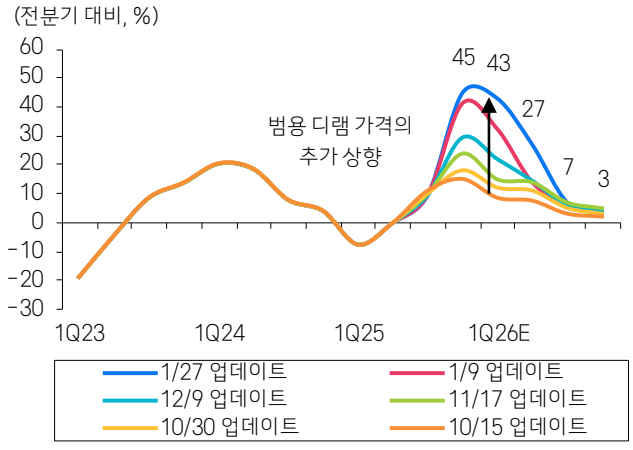
올해 들어서도 DRAM 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서버 고객사들은 높아진 가격에도 AI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기 급급한 상황이다. 전방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 모바일과 PC 고객사들도 여전히 재고 수준이 낮은 탓에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메모리 이익 전망 역시 나날이 상향되고 있다.

가파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 때문인만큼 올해 DRAM 증설은 강력할 전망이다. 투자 규모에 대한 전망도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 당사는 올해 삼성전자가 P4에 80kwpm(웨이퍼 천장/월), SK하이닉스가 M15X에 40kwpm의 신규 증설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상기 전망 역시 추가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단했던 P5 공사를 재개했고, SK하이닉스는 용인 공장 완공 일정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벌써부터 다음 신규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클린룸 공간을 채우는 계획이 앞당겨 졌기 때문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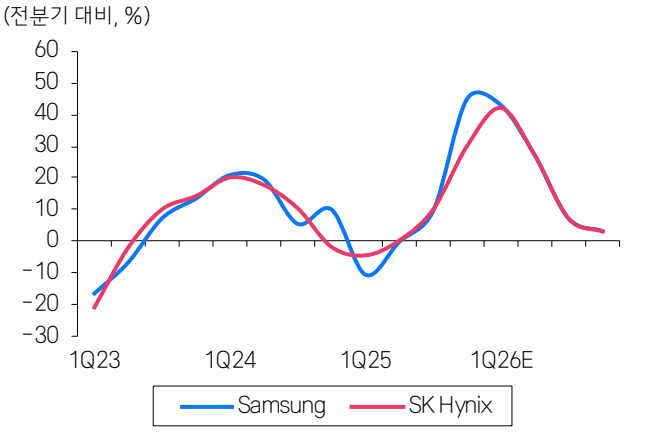
이에 더해 마이크론의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RAM 증설을 앞당기기 위해 대만 PSMC의 공장을 18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와 더불어 마이크론은 국내사들과 달리 NAND에 대한 신규 증설 계획까지 이미 밝힌 바 있다.

DRAM 가격 변화율 가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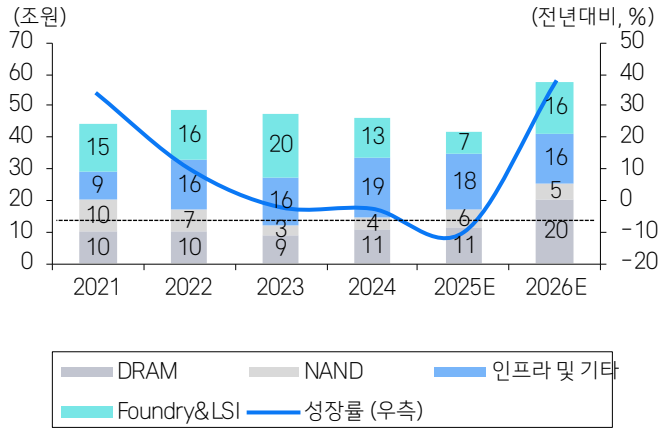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추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기별 ASP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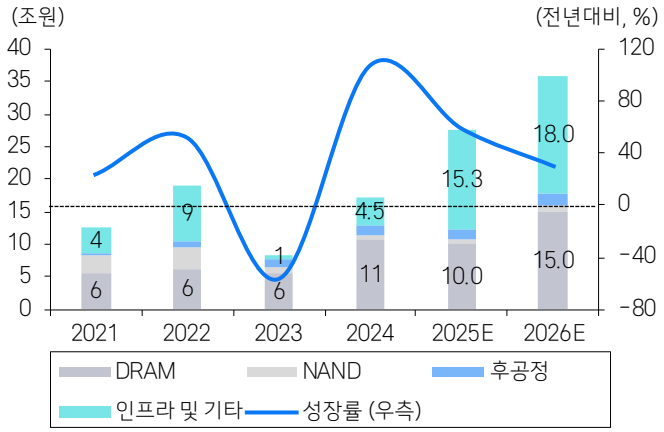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추정

삼성전자 CAP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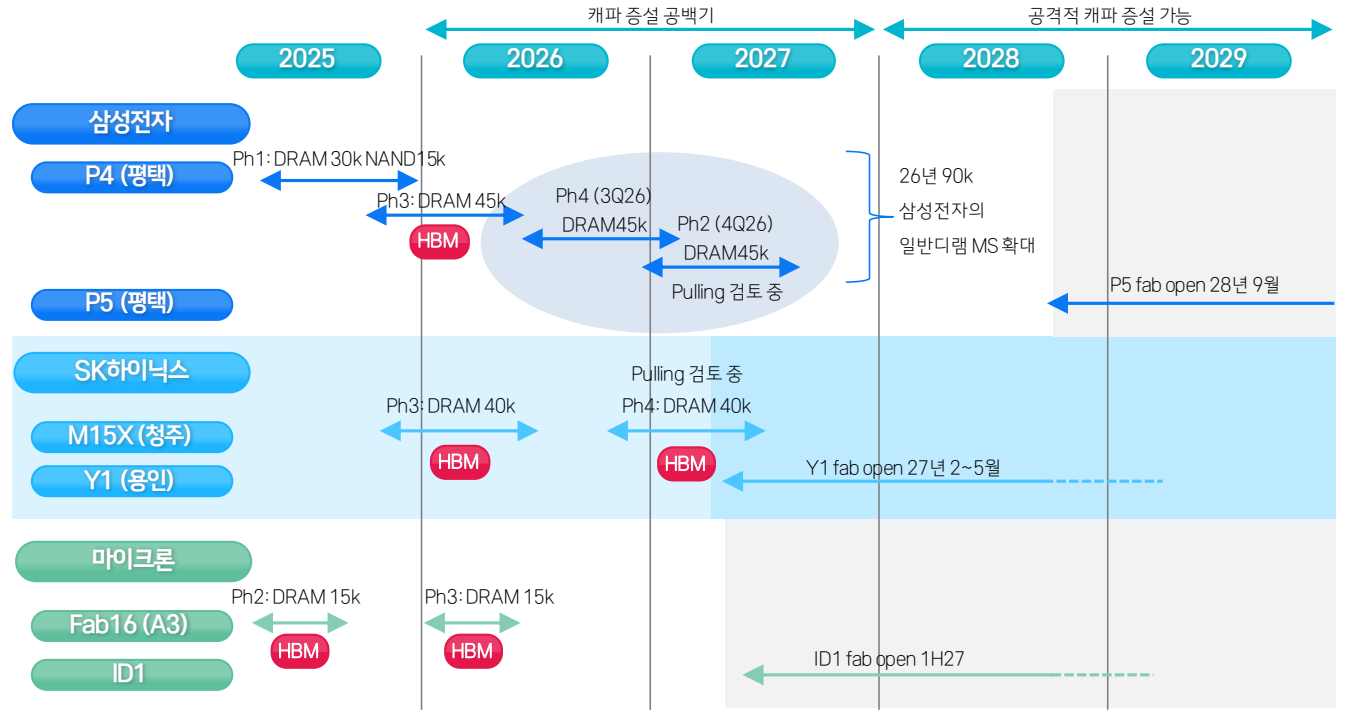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추정

SK하이닉스 CAPEX



자료: 삼성증권 추정

DRAM 증설 계획



자료: 삼성증권 추정

비메모리 CAPEX도 서프라이즈

메모리만큼은 아니지만 로직/파운드리도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실상 파운드리를 견인해 온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연일 상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강도는 늘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 오던 TSMC가 전망을 대폭 상향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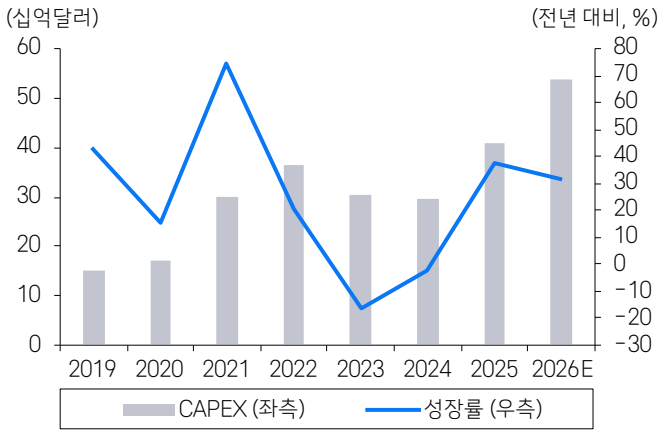
TSMC는 5년 중장기 AI 가속기 관련 매출 CAGR을 40% 중반에서 50% 중후반으로 상향했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매출 CAGR은 15~20%에서 25%로 상향했다. 선단 공정에 대한 고정비 부담 확대, 해외 공장 가동에 따른 수익성 희석에도 불구, 중장기 매출총이익률 전망도 53%+에서 56%+로 상향 조정했다. 중장기 수익성 목표를 상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 가격일 것이며, 이는 여전히 고객들이 동사의 capacity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용을 지불함을 시사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TSMC는 시장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CAPEX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CAPEX 가이던스는 USD 520~5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늘어나는 수치다. 이미 2025년에도 40% 가까이 CAPEX를 확대했음에도 말이다. 참고로 실적 발표 당시 FactSet 컨센서스는 450억 달러에 불과했다.

투자를 늘리는 것은 TSMC 뿐만이 아니다. 인텔의 경우, 오랜 기간 파운드리 수주에 실패하며 CAPEX를 줄여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올해 CAPEX 계획을 2025년 대비 flat 혹은 소폭 줄어드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여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는 작년 대비 올해 더 많은 비중을 장비 구매에 할애할 예정임을 언급하였기에, 실제 장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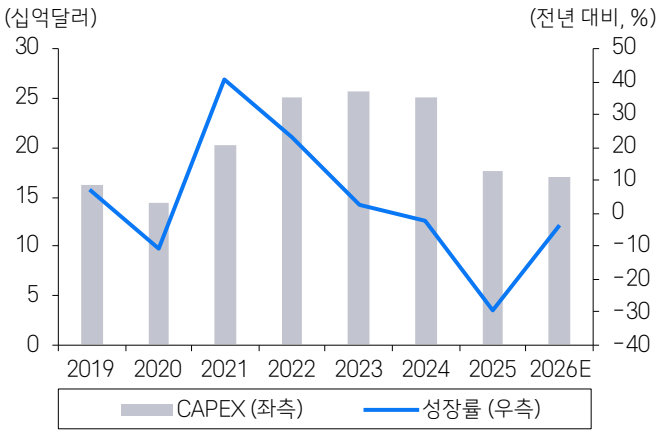
삼성전자 역시 작년 7월 테슬라 수주에 맞추어 미 Taylor fab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증설 규모는 상기 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 ~20kwpm 정도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추가 물량을 시사한 점을 생각해 보면, Taylor 투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을 것이다. 또한 삼성 Austin fab이 애플의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에 포함되어 있기에, 비록 최선단 공정은 아닐지라도 삼성의 비메모리 투자가 확대될 요인들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TSMC: CAPEX 추이 및 가이던스



자료: TSMC, 삼성증권

Intel: CAPEX 추이 및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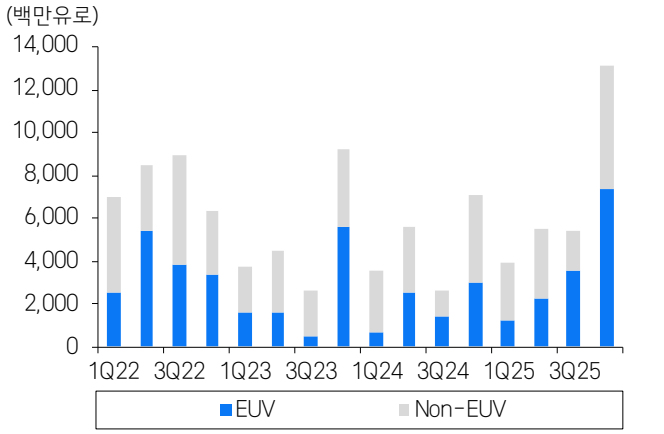
자료: Intel, 삼성증권

상향되는 이익 전망과 확대되는 valuation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기대감이 강화됨에 따라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이익 전망도 함께 상향되고 있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해외 기업들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주 실적과 매출 전망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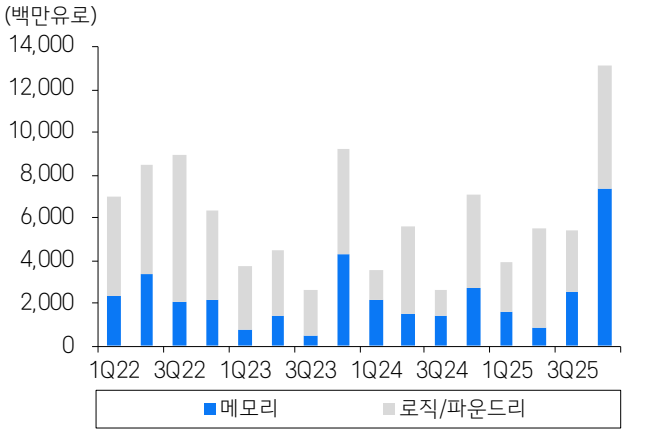
ASML의 4Q25 장비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86%, 전분기 대비 144% 급증하며 분기 신기록을 경신했다. 메모리 장비 수주는 전분기 대비 3배에 가깝게 늘었다. 특히 선단 DRAM, 파운드리에만 쓰이는 EUV 장비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47%, 전분기 대비 106% 증가한 점은 고객사들의 신규 증설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램 리서치 역시 주력 시장이던 NAND의 증설 공백에도 불구하고, CY 1분기 매출액이 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SML: 장비별 신규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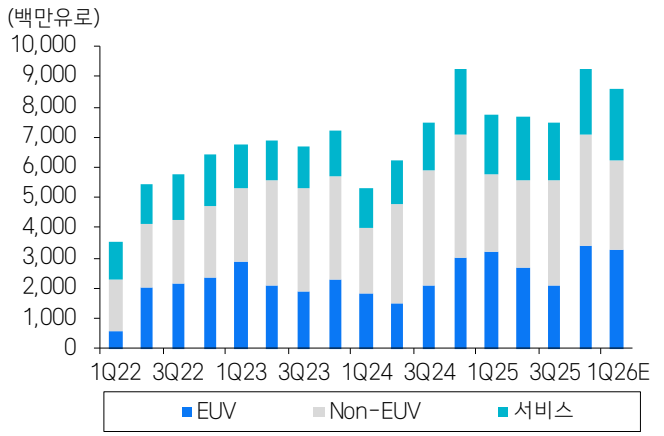
자료: ASML, 삼성증권

ASML: 수요처별 신규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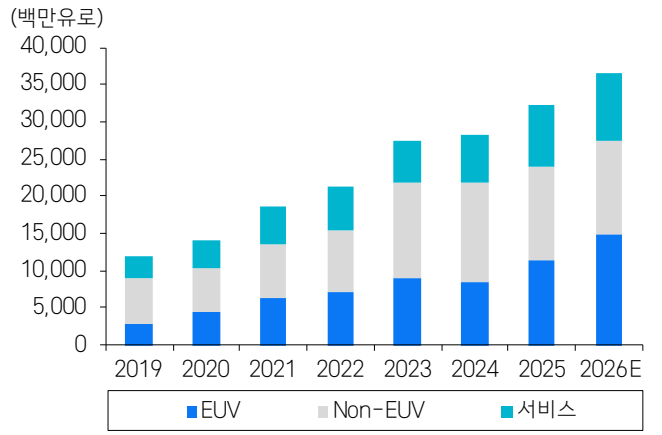
자료: ASML, 삼성증권

ASML: 분기 매출액 추이 및 가이던스



자료: ASML, 삼성증권

ASML: 연간 매출액 추이 및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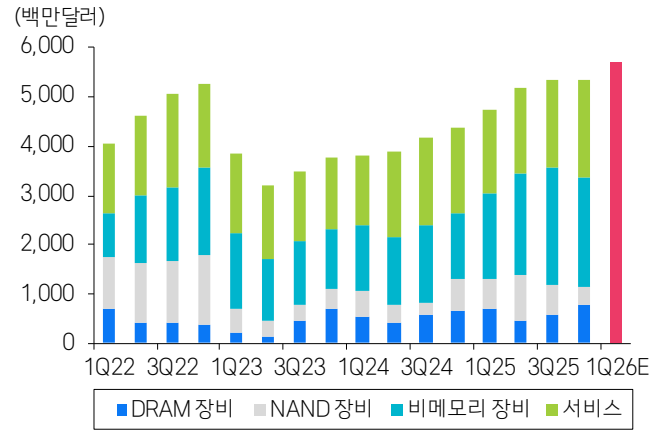


자료: ASML, 삼성증권

한편 이익 기대감이 강화되는 동시에 re-rating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ASML의 경우 한 때 EUV 장비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왔으니 P/E 40~50배 구간이 크게 놀랍지 않다. 그러나 램 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식각/증착 장비 업체들이 턴어라운드가 아닌 이미 이익을 창출하는 국면에서 P/E 35~40배 구간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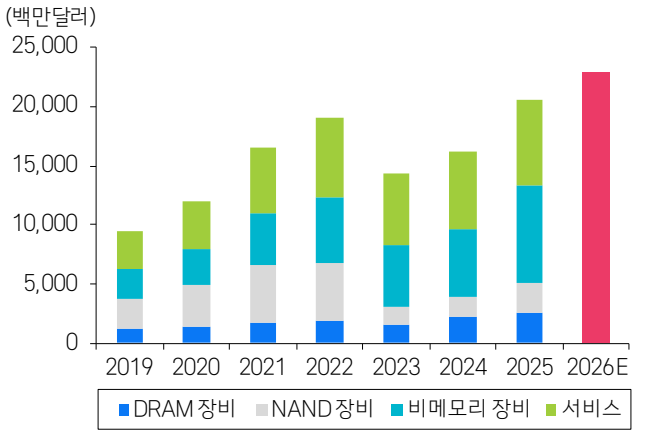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지만, 당사는 이번 CAPEX cycle이 단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지속성)을 시장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I 수요는 여전히 상향되는 가운데, 공급 병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금의 시장은 CAPEX를 공급 과잉 리스크 요인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CAPEX가 다년간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새로운 수준으로의 re-rating을 유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Lam Research: 분기 매출액 추이 및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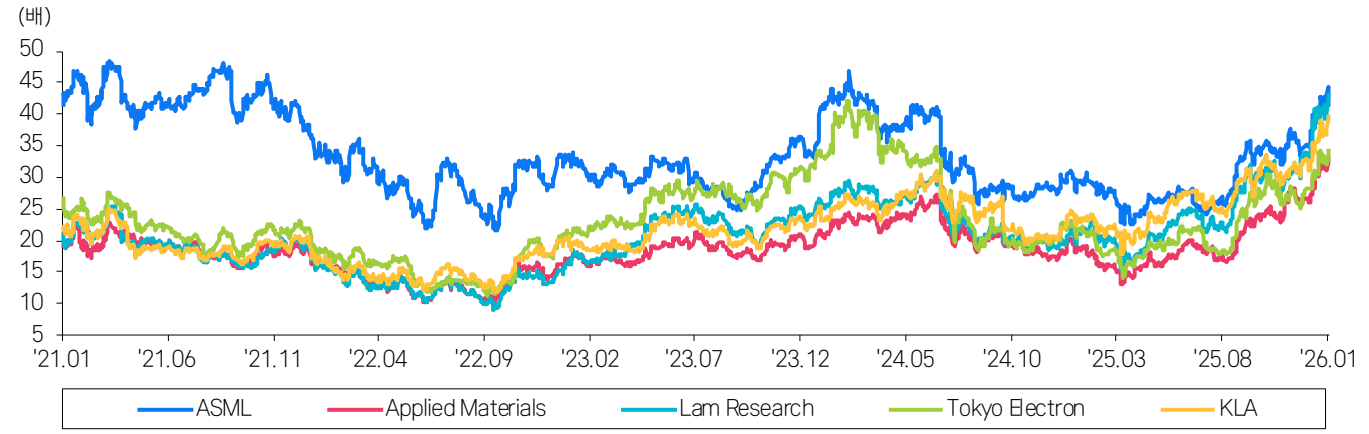
참고: Calendar year 기준
자료: Lam Research, 삼성증권

Lam Research: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컨센서스



참고: Calendar year 기준
자료: Lam Research, FactSet, 삼성증권

Top-5 전공정 장비: 12개월 forward P/E 추이



자료: FactSet, 삼성증권

투자 전략

달라진 환경, 목표주가 상향

국내 업체들도 재평가 필요

지난 일주일 사이 당사 커버리지 종목들도 20% 넘게 급등하는 등 현재 국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도 가파른 주가 상승을 시현하고 있다. 과거 거래 밴드 대비로는 valuation이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현재 반도체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re-rating이 지속되고 있고, 과거 cycle과 달리 중장기 이익 가시성을 확보한 것은 국내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업체들이 재평가 받는 국면에서 국내 업체들이 소외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업황을 달리하지도 않고 말이다. 즉,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과거 대비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이 이익의 지속성에 있다면, 재평가 강도는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더욱 강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들 대비 메모리 고객사 의존도가 높아 그만큼 변동성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높아진 valuation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상향한다.

- **원익IPS:** 2026년 EPS 추정치를 11% 상향 조정하고, 2026년 target P/E를 40배(Top-5 장비 평균, FactSet)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130,000원으로 상향
- **유진테크:** 2026년 target P/E를 32배(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도쿄일렉트론 평균)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130,000원으로 상향
- **테스:** 2026년 EPS 추정치를 23% 상향 조정하고, 2026년 target P/E를 18배(+2SD)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90,000원으로 상향
- **파크시스템스:** 2026년 target P/E를 38배(+2SD)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370,000원으로 상향
- **HPSP:** 2026년 target P/E를 44배(ASML)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50,000원으로 상향
- **넥스틴:** 2026년 target P/E를 32배(KLA 대비 20% discount 적용)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110,000원으로 상향
- **솔브레인:** 2026년 target P/E를 22배 (글로벌 소재/화학 업체 평균)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510,000원으로 상향
- **리노공업:** 2026년 target P/E를 48배(WinWay 대비 20% discount)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110,000원으로 상향
- **ISC:** 2026년 EPS를 2% 상향 조정하고, 2026년 target P/E를 48배(WinWay 대비 20% discount)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160,000원으로 상향

투자 전략

여전히 단기 이익 모멘텀은 장비주가 유리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장비주들을 선호한다.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CAPEX cycle 초기에는 장비 업체들의 이익 성장이 선행되고, 해당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할 때 소재와 부품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즉, 단기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장비주가 유리한 것이다.

물론 장비주들의 valuation 확대 폭이 가장 컸기에, 이미 이익 모멘텀이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반론도 많았다. 그러나 valuation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할 때 이를 잠재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근거 중 하나가 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검증'의 시간에도 장비주가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 비싸더라도 장비주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CAPEX upside는 여전히 DRAM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Top-down 차원에서는 원익IPS, 유진테크, 테스처럼 메모리 투자 민감도가 높은 전공정 증착 업체들을 선호한다. 물론 비메모리 역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기에, 파크시스템스, 넥스틴, HPSP처럼 전통적으로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장비주들도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각 업체 모두 신규 장비 출시를 통한 고객사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어 bottom-up 투자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대신 하반기부터는 내러티브와 valuation 매력이 대립

대신 하반기가 가까워질수록 개별 종목들의 투자 내러티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도 소재 업체들의 '상대적' valuation 매력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많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소재와 부품주들도 이익 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현재 증설 중인 신규 라인들이 슬슬 가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장비와 소재 부품 모두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이라면, 투자 매력도를 따짐에 있어 valuation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기 마련일 것이다. 개별 주식 단에서 업황 말고 자체 내러티브가 없다면, 시장의 관심은 valuation에 따라 빠르게 옮겨 다닐 것으로 판단된다.

원익IPS: 손익 추정치 변경 내역

(십억원)	New		Old		차이 (%)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매출액	937.6	1,344.7	937.6	1,319.7	0.0	1.9
영업이익	79.6	179.4	79.7	167.1	-0.1	7.4
지배주주순이익	70.8	153.8	71.6	138.2	-1.1	11.3

자료: 삼성증권 추정

원익IPS: Valuation 및 실적 추정 요약

(십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원)	EPS성장률 (%)	P/E (배)	순부채	EV/EBITDA (배)	P/B (배)	ROE (%)
2023	690	-18	-21	-14	-282	nm	-120.4	-91	58.3	1.9	-1.6
2024	748	11	17	21	426	nm	52.5	-140	18.3	1.2	2.4
2025E	938	80	93	71	1,455	241.5	76.3	-291	43.2	5.7	7.7
2026E	1,345	179	197	154	3,161	117.3	35.1	-349	23.4	4.9	15.0
2027E	1,401	186	205	160	3,290	4.1	33.7	-439	22.2	4.3	13.6

자료: 삼성증권 추정

테스: 손익 추정치 변경 내역

(십억원)	New		Old		차이 (%)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매출액	326.2	388.0	320.0	370.5	1.9	4.7
영업이익	57.8	85.2	60.2	77.2	-4.0	10.3
지배주주순이익	59.5	80.2	56.4	68.1	5.5	17.8

자료: 삼성증권 추정

테스: Valuation 및 실적 추정 요약

(십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원)	EPS성장률 (%)	P/E (배)	순부채	EV/EBITDA (배)	P/B (배)	ROE (%)
2023	147	-6	2	2	89	-96.6	225.8	-87	-636.1	1.2	0.5
2024	240	38	50	43	2,432	2,632.6	6.4	-48	5.8	0.8	13.6
2025E	326	58	65	60	3,405	40.0	21.1	-70	20.9	3.3	16.7
2026E	388	85	94	80	4,628	35.9	15.6	-111	13.7	2.8	19.3
2027E	428	100	110	93	5,373	16.1	13.4	-184	11.1	2.4	19.1

자료: 삼성증권 추정

ISC: 손익 추정치 변경 내역

(십억원)	New		Old		차이 (%)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매출액	214.0	268.0	209.5	261.3	2.1	2.6
영업이익	54.7	73.8	52.9	70.8	3.5	4.3
지배주주순이익	49.6	65.8	48.4	64.4	2.7	2.2

자료: 삼성증권 추정

ISC: Valuation 및 실적 추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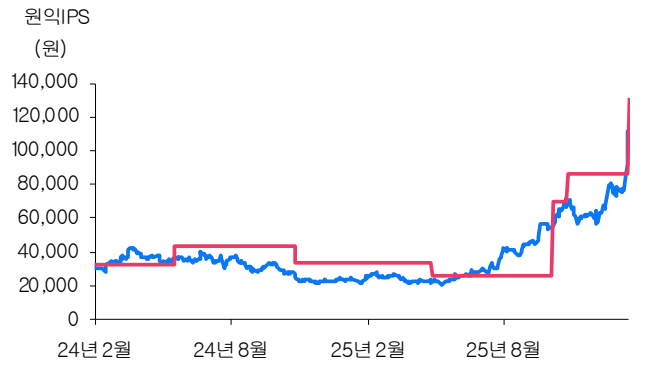
(십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원)	EPS성장률 (%)	P/E (배)	순부채	EV/EBITDA (배)	P/B (배)	ROE (%)
2023	140	11	18	13	750	-70.3	107.1	-255	62.6	3.0	3.6
2024	174	45	70	55	2,671	256.1	27.0	-325	22.0	2.8	11.0
2025E	214	55	62	50	2,426	-9.2	57.2	-37	45.1	5.4	9.4
2026E	268	74	85	66	3,215	32.5	43.1	-17	33.9	4.9	11.9
2027E	304	85	95	74	3,597	11.9	38.6	-31	28.4	4.5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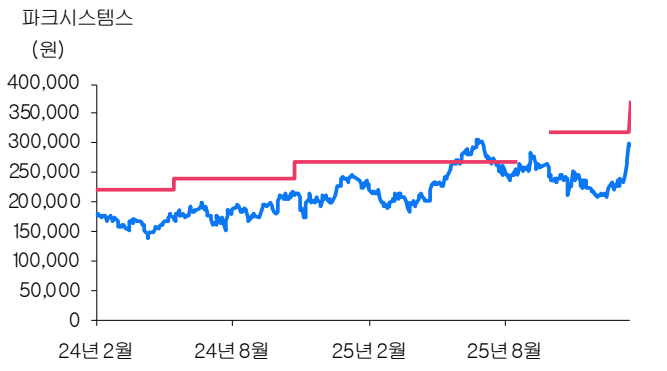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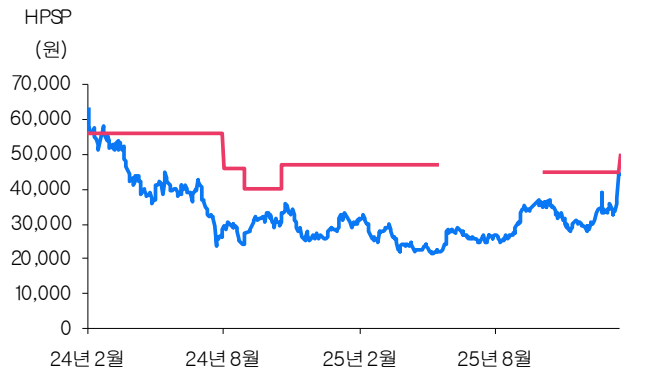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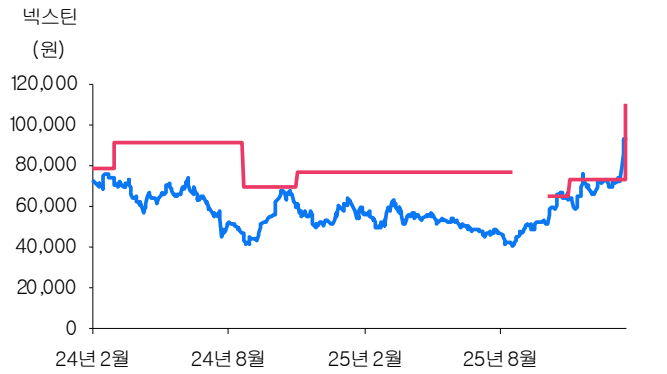
- 당사는 2026년 1월 29일 현재 테스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1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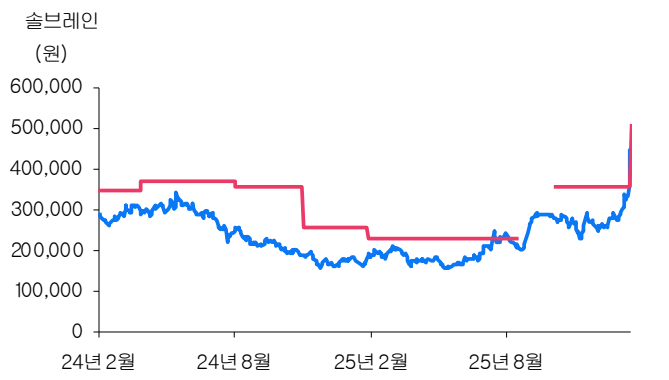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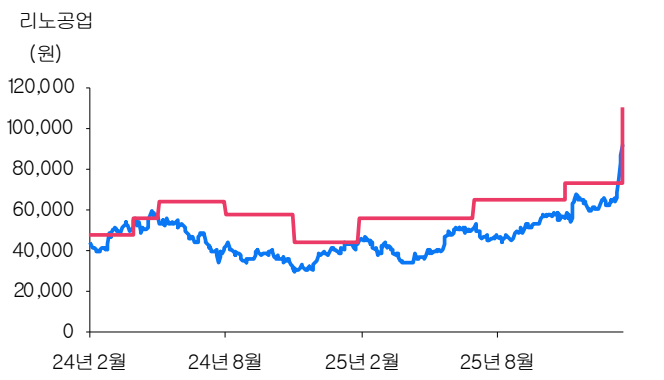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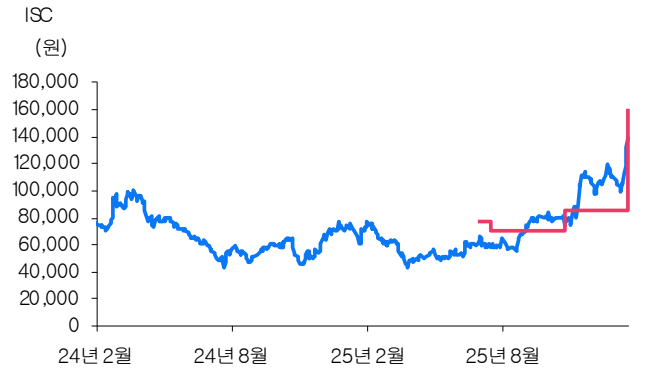
솔브레인



리노공업



ISC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원익IPS								
일 자	2023/2/23	2024/2/23	2024/5/30	11/8	2025/5/12	10/20	11/10	2026/1/30
투자의견	HOLD	HOLD	BUY	HOLD	HOLD	BUY	BUY	BUY
TP (원)	32000	32000	44000	34000	26000	70000	86000	130000
괴리율 (평균)	1.46	13.12	-23.94	-30.32	30.97	-9.08	-20.19	
괴리율 (최대or최소)	17.97	31.56	-8.86	-18.24	119.62	2.43	21.40	

유진테크			
일 자	2025/10/20	11/17	2026/1/30
투자의견	BUY	BUY	BUY
TP (원)	100000	110000	130000
괴리율 (평균)	-4.02	-27.12	
괴리율 (최대or최소)	5.70	-7.09	

테스		
일 자	2025/10/20	2026/1/30
투자의견	BUY	BUY
TP (원)	55000	90000
괴리율 (평균)	-18.14	
괴리율 (최대or최소)	21.45	

파크시스템스					
일 자	2023/10/10	2024/5/28	11/7	2025/10/20	2026/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TP (원)	220000	240000	270000	320000	370000
괴리율 (평균)	-24.87	-22.49	-13.99	-28.39	
괴리율 (최대or최소)	-14.41	-9.58	13.70	-21.25	

HPSP						
일 자	2023/12/4	2024/8/16	9/12	11/1	2025/10/20	2026/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56000	46000	40000	47000	45000	50000
괴리율 (평균)	-22.11	-39.37	-22.77	-41.64	-27.34	
괴리율 (최대or최소)	12.68	-32.93	-16.38	-23.83	-1.44	

넥스틴							
일 자	2023/11/15	2024/3/13	9/3	11/14	2025/10/20	11/17	2026/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79000	92000	70000	77000	65000	73000	110000
괴리율 (평균)	-10.55	-31.90	-19.80	-30.64	-2.83	-6.90	
괴리율 (최대or최소)	-3.54	-18.91	-3.29	-17.01	3.08	4.11	

솔브레인							
일 자	2023/12/4	2024/4/11	8/16	11/15	2025/2/10	10/20	2026/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350000	370000	360000	260000	230000	360000	510000
괴리율 (평균)	-16.93	-21.17	-40.16	-32.44	-16.72	-22.87	
괴리율 (최대or최소)	-10.14	-7.16	-28.89	-24.15	8.04	14.58	

리노공업									
일 자	2023/12/4	2024/3/13	5/16	8/14	11/14	2025/2/10	7/14	11/14	2026/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48000	56000	64000	58000	44000	56000	65000	73000	110000
괴리율 (평균)	-13.26	-6.16	-25.95	-35.29	-15.94	-24.55	-21.56	-12.26	
괴리율 (최대or최소)	1.04	6.43	-12.97	-23.45	-0.23	-7.32	-9.38	19.04	

ISC				
일 자	2025/7/14	7/30	11/6	2026/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TP (원)	78000	70000	85000	160000
괴리율 (평균)	-22.14	0.02	20.54	
괴리율 (최대or최소)	-15.77	20.86	54.82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 (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5.12.31 기준
매수(85.8%)·중립(14.2%)·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